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47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6.26.~2025.07.0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 과제, 세계, 오름, 청년
경제·관광	콘텐츠, 상승, 관광개, 소비, 기반
지역·사회	단속, 대통령, 폭염, 예방, 도로

※ 분석 기간 : 25.06.26.~25.07.0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	- 새 정부 내각 및 주요 직책 인선 -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과 민생 회복 -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원 약속
	과제	- 제주 미래 위한 7조 원대 국정과제 - 민선 8기 3주년, 전문가가 본 제주 과제 - 행정체제 개편, 복잡한 현안 해결 과제
	세계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실패 - 제주 4·3, 로마서 평화 가치 알려 - 제주해녀, FAO 본부 해녀상 등 세계화
	오름	- 제주 오름 관리, 총체적 부실 상태 - 오름 자연휴식년제 유명무실, 훼손 가속 - 체계적 보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청년	-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정책 - 청년 주도 정책, 2년 연속 전국 우수 - 제주 청소년, 8월부터 버스요금 무료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콘텐츠	-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문화적 파급력 - 제주 여름 관광을 위한 7가지 테마 콘텐츠 제안 -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개최
	상승	-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 만에 반등 - 기업 체감경기 및 은행 연체율 동반 상승 - 제주지역 주유소 기름값 큰 폭 상승세
	관광개	-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 지속, 지원책 부심 - 다자녀·기업 관광객 유치 위한 인센티브 - 여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소비	- 대형소매점 판매 부진, 4개월 연속 감소 -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 2024년 해양관광 소비 전국 최대폭 감소
	기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성사 여부 주목 - AI·디지털 혁신 거점 '제주AX융합연구실' 개소 - 제주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구체화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단속	-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위반 단속 - 해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대통령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 줄사퇴 - 김상환 전 대법관, 헌재소장 지명
	폭염	- 제주 전역 폭염특보 및 열대야 발생 - 온열질환자 잇따라 발생 - 농작물 피해 우려 확산
	예방	- 해양사고 예방 조치 강화 -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전개 - 감염병 및 재난 사전 대비
	도로	- 다중 추돌사고 잇따라 발생 - 음주운전 차량 도로 이탈 사고 - 도로 문제 발생 및 제도 개선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6월 26일~7월 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230건임
 - 정치·행정 분야 475건, 경제·관광 330건, 지역·사회 42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 과제, 세계, 오름,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	- 새 정부 내각 및 주요 직책 인선 · 이재명 대통령, 기재부 구윤철, 법무부 정성호, 행안부 윤호중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유능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초대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함. 특히 제주 현안인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연관된 행안부 장관 인선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됨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제주대 석좌교수이자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을, 민정수석에는 봉욱 변호사를 임명.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그 배경을 설명함
-------	-----	---

정치·행정	대통령	-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과 민생 회복 ·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설명하며,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 '경제는 타이밍'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함 ·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6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내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113만 명의 취약 차주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도 발표함 -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원 약속 · 제주 배경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시청 후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하며, 한국적 정서와 섬세한 표현력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평가. 이를 K-콘텐츠 산업 육성의 좋은 소재로 삼아 소프트파워를 키울 것을 약속함 ·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를 밝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추진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문화 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
	과제	- 제주 미래 위한 7조 원대 국정과제 ·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협력하여 총 7조 8451억 원 규모의 72개 핵심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섬.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두 축으로 정책 제안을 구체화함 · 주요 과제로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1.5조), 에너지고속도로 연결(8320억), AI 데이터센터 건립(4000억) 등 미래 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 4·3 평화·인권 교육의 국가 교육 과정화 등 교육 분야 과제도 포함함 - 민선 8기 3주년, 전문가가 본 제주 과제 · 민선 8기 3주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을 강조함 · 고부가가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인재의 역외 유출 문제 해결과 고령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디지털 기술 혁명 도입을 제주의 핵심 과제로 제시. 청년농 육성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됨 - 행정체제 개편, 복잡한 현안 해결 과제 ·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늦어도 올해 10월 까지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의사 결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오영훈 지사는 새 행안부 장관 임명 후 진전을 기대함 ·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도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새로 확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연계됨. 교육의원 일몰제와 맞물려 확정위원회가 촉박한 시간 속에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세계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실패 ·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도시로 부산이 최종 선정되면서 제주 유치가 실패함. 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에 이어 연이은 국제 행사 유치 실패로 원인 분석이 요구됨

	세계	· 제주는 세계유산 5관왕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없는 부산에 고배를 마심. 부산의 국제회의장(벡스코) 등 우수한 인프라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아쉬움을 남김 - 제주 4·3, 로마서 평화 가치 알리 ·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4·3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알림. 오영훈 지사, 이상봉 의장 등 제주 대표단이 대거 참석함 · 포럼에서는 제주 4·3의 진실 규명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며 국제적 연대를 모색. 제주 유스 코러스의 특별 공연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함 - 제주해녀, FAO 본부 해녀상 등 세계화 · 오영훈 지사가 이탈리아 로마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본부를 방문해 규동유 사무총장과 면담, FAO 설립 8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부 내 해녀상 설치와 홍보 영상 제작을 추진하기로 함 · 오는 10월 31일 로마에서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 이를 통해 해녀의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과 공동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임
정치·행정	오름	- 제주 오름 관리, 총체적 부실 상태 ·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오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예산·조직 계획이 없어 정책이 표류하고 있음. 오름 관리 전담 부서 부재와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로 지적됨 ·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오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해 관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오름 명칭조차 표준화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킴 - 오름 자연휴식년제 유명무실, 훼손 가속 · 출입이 통제된 자연휴식년제 시행 오름에서 무단 탐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이 SNS에 버젓이 올라오는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함 · 특히 일부 오름에서는 산악자전거(MTB), 사륜 오토바이(ATV) 등 레포츠 활동으로 인해 탐방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할 실효성 있는 관리 및 통제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남 - 체계적 보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도내 전체 오름 368곳 중 55%가 넘는 204곳이 사유지로, 통합적인 보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사유지 오름의 경우 자연휴식년제 지정조차 토지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보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감사위원회는 오름 내 레포츠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 관리 주체가 없는 오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권고함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콘텐츠	-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문화적 파급력 ·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세계적 흥행으로 촬영지 중심의 기존 드라마와 달리 '해녀', '방언', '시대극' 등 제주 고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제주를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냄 · '해녀'의 온라인 언급량이 방영 전 대비 41% 급증했으며, 연관 키워드도 '음식'에서 '엄마', '삶' 등 정서적 단어로 변화함. 또한, 주요 촬영지인 김녕해수욕장과 제주목관아의 차량 도착 수와 언급량도 각각 96%, 45% 증가하며 뚜렷한 관광 효과를 입증함 - 제주 여름 관광을 위한 7가지 테마 콘텐츠 제안 · 제주관광공사가 여름철 여행 트렌드와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제주의 여름'을 주제로 7가지의 맞춤형 테마 여행 콘텐츠를 발표함. 이는 문화, 웰니스, 자연, 쇼핑, 미식, 어드벤처, 매력 탐방으로 구성됨 · 이중섭 미술관 등 문화여행, 바다를 보며 즐기는 요가, 수국과 해바라기를 감상하는 자연 명소, 원도심 빈티지샵 쇼핑, 용천수 물놀이, '국가유산 방문의 해'와 연계한 특별 탐방 등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안함 -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개최 · 제주의 농업·기술·전통을 융합한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제7회 푸파페 제주'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림.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 푸파페'를 주제로 10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임 · '폭삭 속았수다'의 정서를 녹여낸 전통체험관(빙떡·선다리 만들기), CES 참가 푸드테크 기업의 AI 식물재배기 시연, 한림공고의 드론·로봇 코딩 댄스 등 첨단 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제공함
	상승	-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 만에 반등 · 2025년 6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115.64)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지난 1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함. 이는 전국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8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치임 ·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2.7% 올라 지난해 4월(2.9%)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특히 가공식품 물가(라면 10.5%, 빵 6.7%)와 수산물 물가(고등어 16.3%), 달걀(9.2%)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함 - 기업 체감경기 및 은행 연체율 동반 상승 · 6월 제주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89.8로 석 달 연속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과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93.8)을 밑돌며 기업들의 비관적 체감경기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36.0%)이 꼽힘 · 4월 예금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8%p 오른 1.23%로 역대 최

경제·관광	상승	고치를 또다시 경신함. 이는 전국 평균(0.57%)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기업대출(1.29%)과 가계대출(1.25%) 연체율 모두 3~4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움 - 제주지역 주유소 기름값 큰 폭 상승세 · 6월 넷째 주(22~26일) 제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24.49원으로 직전 주보다 37.37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함.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격으로, 상승 폭 또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음 ·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 역시 리터당 1585.58원으로 39.68원 상승함. 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올해 4월 셋째 주 이후 10주 만에 1700원대에 재진입하며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관광개	-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 지속, 지원책 부심 · 2025년 6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97만 3,8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으며, 상반기 누적 내국인은 533만여 명으로 10.2% (약 60만명) 급감함 ·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체관광객 1인당 3만원, 전기차 렌터카 이용 시 2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아직 뚜렷한 감소세 반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다자녀·기업 관광객 유치 위한 인센티브 ·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명 이상(막내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에게 1가구당 2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면세점 이용권을 지원함. 특히 친환경 국제 인증 '그린키(Green Key)' 숙소 이용 시 추가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박 이상 제주에 체류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는 도외 기업·기관·단체에게는 11월 21일까지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JEJU Workshop'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17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도 제공함 - 여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공항 내 포토존 4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하는 '제주공항이 찐 사진 맛집 아니우파' 이벤트를 진행함. 참여자 피드백은 향후 공항 이용 환경 개선에 반영될 예정임 · 제주관광공사는 여름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7월 6일까지 '제주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서부권역 웰니스 관광지 2곳(생각하는 정원, 환상숲 꽃자왈 공원)에 30%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함. 9월과 11월에는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소비	- 대형소매점 판매 부진, 4개월 연속 감소 · 5월 제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89.5)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지난 2월(-18.3%)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4개월 연속 이어짐. 이는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임 · 상품군별로 의복(-31.5%), 화장품(-18.3%), 기타상품(-14.1%), 음식료품(-8.4%)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판매가 급감했으며, 오락·취미·경기용품(10.7%), 신발·가방(5.4%), 가전제품(5.4%) 등 일부 품목만 소폭 증가세를 보임 -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경제·관광	소비	· 깐마늘 소비 부진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함 · 깐마늘 1kg은 9,900원, 양파 15kg은 11,900원으로 시중가 대비 약 26~27% 저렴하게 판매하며, 각각 5만봉과 1만망의 물량을 준비함. 이 행사는 도민의 '착한 소비'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가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됨 - 2024년 해양관광 소비 전국 최대폭 감소 · 2024년 제주 연안의 해양관광 소비액은 3조 4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며, 전국 11개 연안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함. 이는 지역 경제에서 70.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관광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냄 ·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58.3%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숙박(-8.5%)과 여가·오락(-9.6%) 등 체류형 관광 관련 소비가 크게 위축됨. 이는 콘텐츠 부족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단기 방문 중심의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함
	기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성사 여부 주목 · 민선 8기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주민투표가 미뤄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제주도는 조직설계, 재정조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나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며 행정력 낭비 우려가 제기됨 ·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이 대통령의 3개 기초단체 설치 찬성 입장이 향후 개편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AI·디지털 혁신 거점 '제주AX융합연구실' 개소 · 제주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제주AX융합연구실'을 개소함. 그간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부재했던 제주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중요한 연구개발 거점이 마련됨 ·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ETRI 제주권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AI 기반 기후테크, 자립형 AI 관광서비스, AI 반도체 인재 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대 등과 협력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제주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구체화 · 제주의 근현대사와 해양문화를 주체적으로 조명하는 '제주역사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됨. 이는 기존 박물관과 달리 유물 중심이 아닌 주제별 시각자료 중심의 상호작용형 전시를 지향함. · 총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함. 현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해 기존 박물관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신산공원 일대 '제주역사문화지구' 조성의 구체화 단계임

지역·사회	단속	발함. 이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30건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수치임 여름 성수기를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함.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됨
	대통령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친 첫 대면조사를 진행함.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3시간 넘게 조사를 거부해 실제 신문 시간은 5시간 5분에 그침 -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응함. 이에 특검은 7월 5일로 조사일을 재지정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재차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 출사퇴 - 이재명 정부 출범과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제주 출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함 - 이는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추진 전망 속에서 특수통을 중심으로 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됨. 사의를 밝힌 양석조 지검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라며 개혁안을 비판함 - 김상환 전 대법관, 헌재소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함.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공식 임명됨 - 김 후보자는 과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 제주와 인연이 깊으며, 특히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제주4·3특별법' 관련 규칙 개정에 기여하며 4·3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회복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음
	폭염	- 제주 전역 폭염특보 및 열대야 발생 - 마른 장마 속에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 특히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열흘가량 빠른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임 -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이틀 연속 제주 해안 전역에서 나타남. 이로 인해 서귀포에서는 6월 일최저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짐 - 온열질환자 잇따라 발생 -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제주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닷새간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현장 처치를 받음

지역·사회	폭염	· 환자들은 공사장, 밭, 도로 등 대부분 실외 환경에서 발생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게 나타남. 밭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젊은 층도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농작물 피해 우려 확산 ·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수박 등 농작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 강한 햇빛에 수박이 타들어 가면서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 특히 국내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서는 초기 가뭄 현상까지 겹쳐 피해 우려가 큼. 파종 시기가 다가왔지만 폭염으로 밭이 갈라져 정상적인 발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됨
	예방	- 해양사고 예방 조치 강화 · 제주해경이 여름철 빈번한 다이빙 사고 예방을 위해 판포포구 등 주요 다이빙 명소에 간·만조 시간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함. 최근 3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함 ·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함. 해상 음주운항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임 -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전개 · 여름 휴가철 렌터카 교통사고가 비수기보다 16%가량 높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안전운전 교육을 당부하고 주요 관광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안전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륜차·농기계 사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 - 감염병 및 재난 사전 대비 · 제주도가 해외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함. 에볼라바이러스 유입 상황을 가정해 보건소, 병원, 소방 등 36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 초동 대응 역량을 점검함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 긴급 점검·정비에 나섰으며,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도내 생활 밀접 시설 255곳을 점검함. 점검 결과 154곳에서 정비 요소가 발견돼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를 진행할 계획
	도로	- 다중 추돌사고 잇따라 발생 · 제주에서 사흘간 5건의 다중 추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도로 안전에 적신호가 켜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는 차량 4대가, 연동신광사거리에서는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 특히 신광사거리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는 트럭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지역·사회	도로	- 음주운전 차량 도로 이탈 사고 · 제주시 조천해안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동승자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됨 · 또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는 50대 남성이 몰던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옆 도랑에 빠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일어남. 해당 운전자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도로 문제 발생 및 제도 개선 ·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2m 규모의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긴급 복구 및 안전 조치에 나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우려로 한때 차량 통제가 이뤄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성산일출봉과 남조로, 번영로 등 3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